

# 35년 역량 모아 청년 불교 중심으로 '우뚝'

## 대우불청, 1월 28일 창립기념법회 봉행

경남 청년 포교의 기동 역할을 담당해 온 (사)대한불청 대우불교청년회(회장 이정덕·이하 대우불청)가 35주년을 맞았다.

대우불청은 35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청년 포교와 수행 그리고 화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재발심의 한해로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1월 28일 거제불교회관 설법전에서 진행된 35주년 창립기념법회에는 직장을 마치고 들어온 재가 불자들이 가득 찼다. 매주 수요일마다 법회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불청의 정기법회 자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별히 창립을 기념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청년 불자들의 발걸음은 늦은 시간에도 끝없이 이어졌다.

1부 기념식 및 법회는 청년회 최은화 부회장의 발원문 낭독으로 시작됐다. 청정한 마음, 깨어 있는 청년이 될 것을 발원하는 낭독에 이어 대우불청은 공로상 및 표창장 시상과 장학금 전달식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그간의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은 최은화, 변영희 씨와 공로상은 이복순 씨가 각각 받았다. 이어 장학생을 선발해 매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대불청은 창립을 기념하는 특별장학금을 마련해 해성고등학교 이

운 학생에게 전달했다.

이정덕 대우불청 회장은 "청년회 35년의 역사는 범우님들의 도움과 역대 회장 및 임원들의 헌신, 지역 대덕 스님과 지역불자들의 후원으로 가능했다"며 "지금에 안주 할 것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고 재발심의 원력으로 나아가며 봉사활동과 수행을 이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 수행·화합의 공동체 발원

### 청년회원 300여 명 참석

### 무료급식 등 봉사 이어가

"청년들을 위한 실질적인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해 중앙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교 포교를 위한 여러 과제에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만성 거제재가불자연합회장도 "경남 불심을 지켜온 대우불교청년들의 중심으로 돌아가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남 대표 재가불자 청년회인 대우불교청년회는 창립 35주년을 맞아 1월 28일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마가 스님의 특별법석이 이어졌다. '내 마음 바로 보기'란 주제로 범문한 마가 스님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불법삼보를 의지해서 살아 나아가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 이 웃을 향한 작은 친절과 사랑으로 복을 지어 더욱 행복하길 바란다"고 설했다.

대우불청은 경남 재가 불자의 중심지로 활동 해왔다. 경남 봉축 행사를 주관해 모든 장엄물을 직접 제작하고 봉축의 기쁨을 알렸다. 또한 장학금 전달, 무료급식, 헌혈 운동, 지역민을 위한 경로 잔치, 농촌 돌기 봉사활동, 염주 달아주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교에 앞장섰다.

매주 수요일 스님을 초청해 정기 법회

를 진행하고 경전 공부와 시민들을 위한 법회도 봉행했다. 어린이 법회, 군부대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가운데 출가를 한 스님이 13명에 이를 정도로 불심이 깊은 경남 대표 청년회로 인정받고 있다.

현대 법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제불교회관은 1982년 불교회관건립기금 마련으로 시작해 1996년 공사를 마무리 했다. 대부분의 공사를 직접 시공하고 정성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이정덕 회장은 "거제불교회관을 경전공부와 지역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나눔·화합으로 함께하는 경상 불교계

## 부산·경북·대구 불교계 단체 신년하례 잇달아

2016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다짐으로 한해를 열고 나눔으로 출발을 장식하는 뜻 깊은 자리들이 잇달아 개최됐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는 1월 27일 롯데호텔에서 울산 발전과 시민 안위를 기원하는 '울산불교신년하례'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고문 월파·대원·금봉 스님, 자문 경봉·덕진 스님 및 종단연합회 회장 만초 스님, 통도사 총무 도문 스님, 김복광 울산불교신도회장, 김기현 울산시장, 정갑윤 국회부의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16년 신년하례에서 사부대중은 원로 스님들에게 세배를 올리며 건강과 평안을 기원했다.

부산 실업인들도 모여 2016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운환)는 1월 22일 부산불교실업인회 묘광선원에서 신년하례를 봉행했다. 100여명의 불자 실업인회가 모인 가운데 BBS '부자양성 프로젝트' 강의를 진행하는 우승택 에스티스테크 강의를 초청해 강의를 듣는 시간도 마련했다.

장원시불교연합회(회장 도홍)와 금강자비회(이사장 홍고불심)는 신년을 맞아 나눔으로 한해의 시작을 알렸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 회원들이 1월 27일 신년하례에서 원로 스님에게 세배를 올리고 있다.

2월 2일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창원불교연합이 개최한 '제26회 이웃사랑 자비나눔 한마당'에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모범청소년 고교생, 다문화 가정 이주여성, 무의탁 독거노인 및 시각 장애인까지 100여명을 초청해 성금 4500만 원을 전달했다.

대구 지역 종교인들도 신년하례를 열고 종교간 화합을 다짐했다. 대구종교인평화회의는 1월 26일 대구 YMCA 3층에서 종교인 신년 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년하례회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제9구 분사 동화사, 천주교 대구대교구 등 6개 종교지도자들이 새해를 맞아 종교간 화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하성미 기자·손문철 대구지사장

## 연등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

### 23일 대구교육청 강단서

연등장학재단 제11회 장학금 전달식이 1월 23일 대구시교육청 강단에서 열렸다.

조계종 팔공산 제2석굴암(주지 범등)에서 주관한 대구경북 고등학생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행사에는 대중스님과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학금 수여자는 경주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선호스님 외 대학생 14명(스님 6명)에게 각 1백만원과 고등학생 25명에게 50만원씩으로 이날 3200만원이 전달됐다. 그간 수여자는 총 504명으로 3억9485만원이 지급됐다.

연등장학재단 이사장 범등 스님은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대작불사"라면서 "장학생들은 세상다운 세상을 만들어 훗날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자비의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 "부산불교 복지, 직영 체제 확대해야"

## 윤기혁 사무총장, 28일 시민문화 발전 심포지엄서

### 부산불교 복지관 75% '위탁'

### 지역 편중도 심해 분배 필요

### 지역 불교 복지계 연대해야

"최근 불교계에서 운영하던 진주 장애인 위탁 시설이 타 종교 기관에 넘어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사할 내 유후토지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직영 복지 시설을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 직영으로 운영하면 재위탁 여부에 대한 부담도 감소하며 복지를 통한 포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

부산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 대부분 위탁 형식이며, 불교 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직영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종교사회학회와 동양사회사상학회, 지속가능공동체포럼은 1월 28-29일

부산 동명대에서 '종교시민단체와 한국적 시민문화의 발전 방안'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28일 발제자로 나선 윤기혁 (사)부산불교복지협의회 사무총장은 복지 시설 직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사무총장의 '부산불교계 복지시설의 현황과 실태' 주제 발표에 따르면 부산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복지 시설 101개 가운데 74개소(73.6%)가 위탁이며 24개소(24.5%)만 직영 시설이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불교사회복지의 이념과 사상을 담은 사업을 자유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직영 시설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불교계의 복지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실제 1999년 부산불교사회복지협의회 출범으로 15개소에 불과했던 복지 시설이 10년 동안 57개소로 4배로 증가했으며, 15년 뒤에는 7개

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부산이 한국 불교의 중심지라고 한다. 현재 2015년 12월 기준으로 부산에는 26개의 종단과 2000여개의 사찰이 있지만 복지 시설은 그에 비해 참여도가 저조하다"며 "그에 대한 방안으로 복지 연합으로 활동하며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복지 시설을 고루 분배 할 것과 가족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 활성화를 과제로 꼽았다.

심포지엄은 '종교와 사회복지와의 만남', '종교와 시민사회복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민사회와 종교', '다종교 사회의 특수성과 한국 시민 문화(현장답사 및 토론)' 다양한 주제로 이어졌다.

발표는 윤기혁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사무총장, 정승안 교수(동명대 자율전공학부), 김미경 교수(광주대), 이명호 교수(한양대) 등 여러 전문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 "중생 보듬는 수행자가 되세요"

## 청암사, 23일 승가대학·울학대학원 졸업식

비구니 전문 교육도량 청암사는 승가대학과 울학승가대학원 졸업식을 1월 23일 경내 자양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청암승가대학장 조계종 제8구 분사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천혜사 주지 성준 스님, 서정하 김천시 자치행정국장, 이명기 시의원 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청암사 울학승가대학원 8명과 승가대학 7명의 졸업자를 배출했다. 졸업식에서는 울학승가대학원 명성 스님 과 승가대학 졸업생 능혜 스님이 조계

종 교육원장상을, 성호 스님이 학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날 학장 지형 스님은 "불교의 깨달음의 목적은 개인의 행복과 해탈 열반에만 멈춰져 있지않고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 더 나아가 그들의 해탈 열반을 향해있다"며 "수행과 포교를 위해 신심 전력과 중생 향한 자비심을 발원해 진정한 이 시대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주지 상덕 스님도 "청암승가대학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면서 수행과 전법교화에 전력하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암사는 승가대학과 울학승가대학원 졸업식을 1월 23일 경내 자양전에서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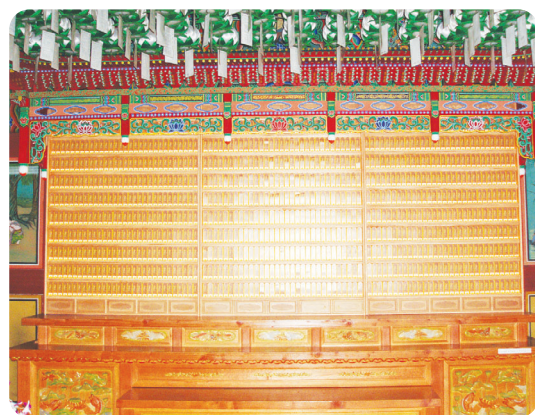


#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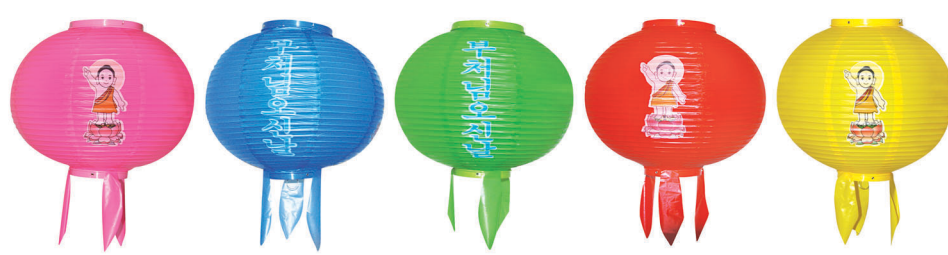
##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 만월등



## 공단등



##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